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여 용정리 호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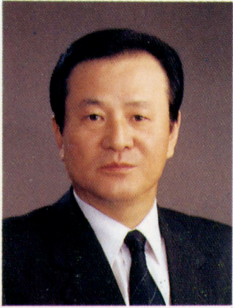


기간 : 1992. 9. 23 - 9. 25

장소 : 경북 구미시 공설운동장

충 청 남 도

인 사 말 씀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에 금오산의 힘찬 정기가 어린 구미시에
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경하해마지 않습
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나라 민속은 그 나라 서민 사회의
기층문화로써 꾸준히 전승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무를 즐기고 조
상을 섬기는 데 정성을 다했던 우리 민족은 여러 세시 풍속이나
민속놀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겨레 특유의 민속예술을 훌륭하
게 가꾸어 왔습니다.

이렇듯 수 천년을 가꾸어 온 우리의 민속예술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발달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근래 들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 높아지고 민속 예술을 보전 계승코자 하는 의욕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룩해 낸 민족의 축
제로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뜻이 한층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참가 종목인 용정리 호상놀이는 천수를 다한 이에 대한 장례를 하나의 놀
이로 승화시킴으로서 한민족 고유의 낙천성과 내세관을 반영한 마을 공동체적 삶의 의
지가 담긴 귀중한 민속 예술로 이에 대한 가치는 매우 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우리의 뛰어난 민속 예술이 더욱 발전 계승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9월

충청남도지사 이 중 국

용정리 호상놀이 유래

고유의 독특한 상여소리와 상여호르기가 전승되어 오고 있는 부여 용정리는 백제의 고도인 부여읍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용정리는 옛 사비성을 감싼 나성 바로 밖에 위치하여 많은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며, 마을의 형성시기는 분포된 유적으로 미루어 백제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200여 가구에 약 1,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생업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부여 용정리 호상놀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와 연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마을에 사는 오랜 선소리꾼인 하운(80)씨는 자신의 조부로부터 예전 어른들이 해온 전통있는 상여놀이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연대가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용정리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두레 형식의 상두계가 있어 동네에 상이 나면 모든 장례일을 도맡아 처리해 왔으며, 이 계를 통해서 상여호르기와 용정리 특유의 짝수 상여소리를 전수해 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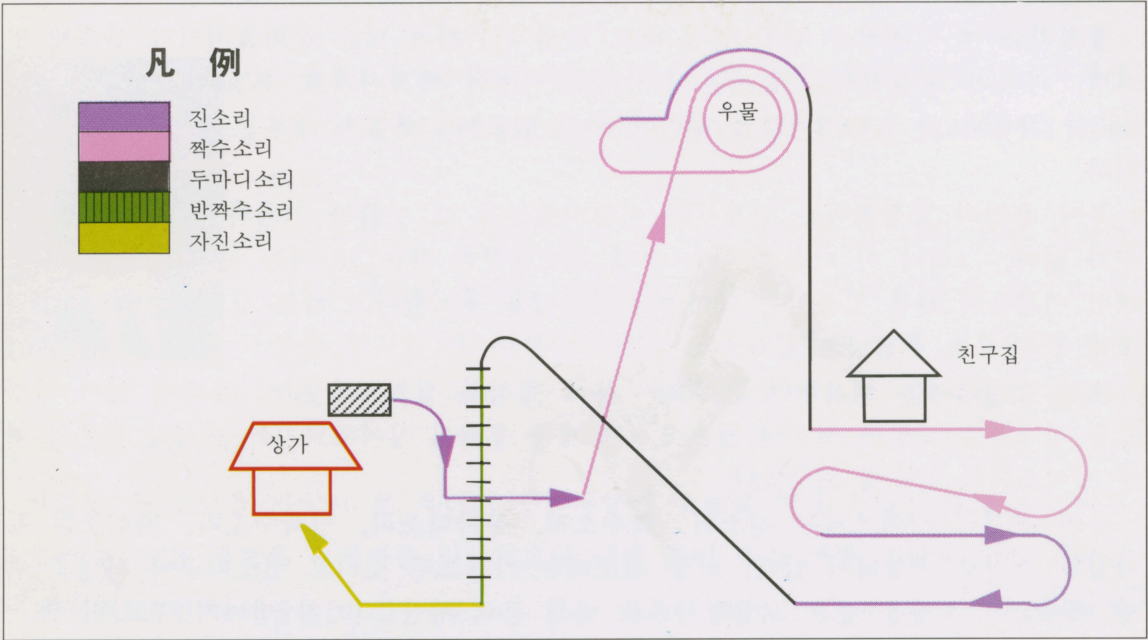
부여 용정리 상여소리는 진소리, 짝수소리, 두마디소리, 반짝수소리, 자진소리 등 다양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진소리는 가장느린 소리로 선소리꾼이 사설을 하면 대메군이 후렴을 받는 교창형식으로 대개 동네 밖을 나가기 전까지 부르며, 또한 상여가 멈추거나 출발 할 때도 부른다. 짝수소리는 동네를 나와서 부르는 보통빠르기의 소리로 용정리 상여소리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소리이다.

대부분의 상여소리는 선소리가 끝나면 후렴을 받는 형태로 불리워 지는데, 이 짝수소리는 상여를 멘 대메군이 좌·우 또는 전·후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사설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한소리가 끝나면 단순히 후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뒷쪽에 일정한 연음부가 있어서 이 연음부에서 다음 소리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짝수소리는 고도의 가창력이 발휘되어 다른 상여소리보다 애조, 장엄 및 음악성이 두드러진다. 두마디소리는 빠른 소리로 대개 짝수소리가 끝나고 먼길을 가면서 부르고, 반짝수소리는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만 부르는 소리로 대메군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자진소리는 가파른 언덕이나 산을 올라 갈 때 부르는 소리인데, 소리가 급박하고, 속도감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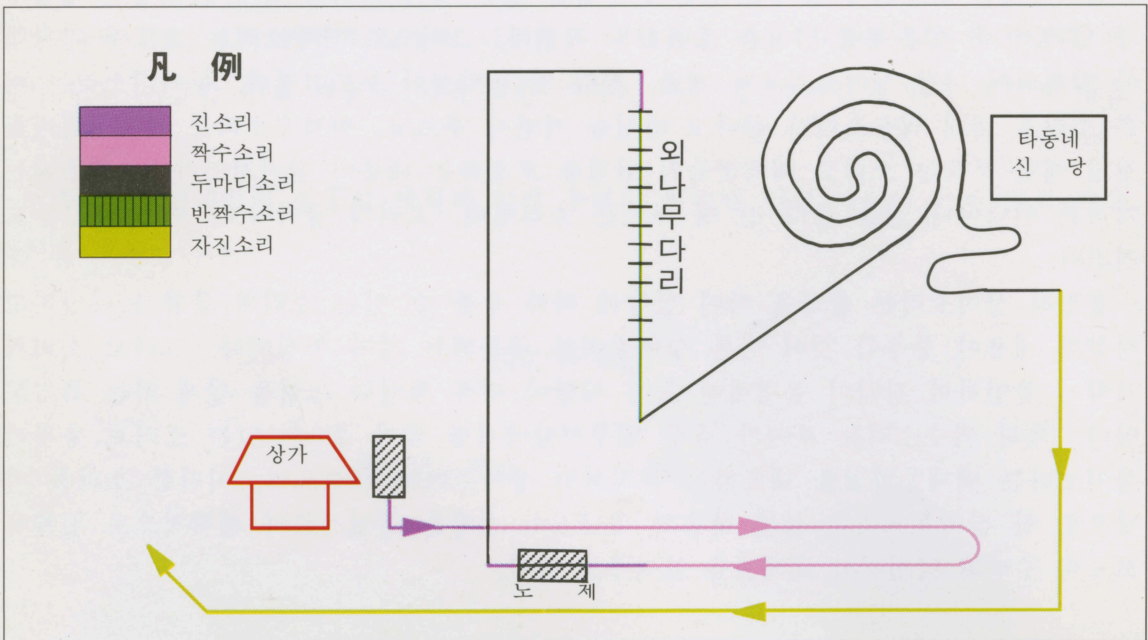
용정리 상여소리는 출상을 하여 상황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설의 내용이 풍부한 것이 다른 상여소리와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소리의 가락이 유연하며 강약이 분명하여 듣는 사람이 더욱 처연한 느낌을 갖게 하는 특징도 있다. 특히 짝수소리는 부여와 공주 일부지방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소리로 용정리 상여소리는 백제문화권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상여소리라 하겠으며, 이러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상여호르기는 삶과 죽음의 극단적인 상황을 동일시하여 해학적으로 진행하므로써 주민의 낙천적인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다.

놀이의 흐름

상여 흐르기



出 喪



구성 및 내용

▣ 상여 흐르기

상여흐르기는 출상 전날에 대메군이 모여 빈상여를 메고 동네를 돌며 노는 풍습을 용정리에서는 “상여 흐른다”고 한다. 고인의 사위를 상여에 따르게 하여 동네 우물, 고인의 친구집과 일가 친척집을 다니며 하직인사를 한다. 이렇게 동네를 한바퀴 돌고 난 후에는 다시 상가에 와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밤늦도록 여흥을 즐기기도 했다. 상여흐르기는 놀이를 통해서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의미와 생사를 동일시하는 주민의 낙천적 의식을 보여주며 다음 날 있을 운구의 예행적 행사로서 예전부터 매우 중요시 되었다.

1. 우물 하직하기

고인이 먹던 동네의 우물에 와서 절을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한다.
(소리 : 진소리, 두마디소리)



2. 친구 하직하기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집에 도착하여 친구와 하직인사를 한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노자를 걸어주며 정을 표하고, 마을 노인 몇몇은 춤을 추면서 아쉬움을 달랜다. (소리: 짹수소리, 친구하직 진소리, 두마디소리)



3. 외나무다리 건너기 연습

출상날 외나무다리를 건널 것을 대비하여 다리를 상징하는 명석을 건넌다. 대메군 32명중 안줄 16명만 상여를 메고 명석 다리를 건너고, 나머지 대메군과 동네사람은 뒤따라 온다. (소리: 반짹수소리, 진소리, 두마디소리)



출 상

용정리 호상놀이의 출상의식은 발인제, 노제, 외나무다리 건너기, 타동네 신당지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상 할 때의 장례 행렬은 만장 - 지전 - 공포 - 방장쇠 - 요여 - 운아 - 상여 - 복인 - 조객 순으로 뒤따른다.

1. 발인제

발인 준비가 모두 끝나면 축관은 발인축을 읽는다. 이어 요령잡이는 요령을 흔들며 상여를 메도록 대메군을 불러 모은다. 상여를 멘 대메군은 앞서서 출발소리로 “어-허 이 어-헤”를 두번 반복 하고 일어선다. 상주, 안상주, 딸등이 고인에게 마지막 하직인사를 드리면 상여는 출발하여 대문을 나선다. (소리:진소리, 짹수소리)



2. 노 제

먼길을 가다가 힘이 들어 운구를 멈추고 잠시 쉬어간다. 이때 미처 조문을 못한 조객들의 인사를 받고, 그냥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한 고인의 친구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마지막 제사를 올린다. 축이 끝나면 다시 상여를 메고 떠나는데, 상여소리는 들리지 않고, 구슬픈 요령소리만 정적을 깨 주위는 더욱 슬픔에 잠긴다. (소리:진소리, 두마디소리)



3. 외나무 다리 건너기

상여가 외나무 다리 앞에 오면 상주와 사위등 복인들은 무사히 건너 주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상여에 돈을 걸고 대메군에게 절까지 한다. 32명의 대메군 가운데 16명이 두줄로 상여를 메고 다리를 건너며, 나머지는 뒤를 따라온다. (소리: 반짝수소리)



4. 타동네 신당 지나기

옛부터 자기 마을 신당 앞으로 타동네 상여를 못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길이 그곳 하나뿐인지라 아니 갈 수가 없다. 타동네 청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 싸움이 된다. 그러나 밀고 밀리는 사이 상여는 유유히 신당을 통과한다. (소리: 두마디 소리, 자진소리)



상여소리 가사

○진 소리

(메김소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정든집을 떠나간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간다드니 왜 또 왔소 울고갈길 왜 또 왔소

(받는소리)

어 - 허이 어 - 헤 어 - 헤이 어헤

○짜수소리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이수한몸 백로로 가세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은 수심도 많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 마라
 시내 갱변 종소리새는 천장만장 구만장땀다

(받는소리)

에 - 헤루가자 에 - 헤루가자 어 - 허아 어 - 헤에

○두마디소리

(메김소리)

천하일색 양구비도
낙화가 지면 허사로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웃녘 태산을 어서가세
저승길이 멀다드니
문턱박이가 저승일세

(받는소리)

어 - 허이 어 - 헤

○반짜수소리

(메김소리)

밭맞추소 밭맞추소 우리군정네 밭맞추소
이제가면 언제오나 명년 이때 춘삼월에
대메군들 빨리와요 제자리로 들어가오

(받는소리)

가세 가세 외나무 다리를 가세

○자진소리

(메김소리)

어 - 허 어 - 헤

(받는소리)

어 - 허 어 - 헤

출연자 명단

역 할	성 명	비 고
상 주	송도현, 최동균, 박정복, 정순길, 오병택	
안 상 주	정재순, 김동례, 임순덕, 박옥순, 홍정림	
사 위	송덕현, 이용우, 정문수	
딸	정정순, 정순희, 황경순	
여 자 복 인	조정순, 김길제, 최재준	
친 족	장병하, 노영서, 박장규, 김승만, 박정문, 이동치, 임윤수, 김판근, 유병택, 전성현	
손 자	주광성, 최갑부, 김재수, 송철호, 강관옥	
조 객	하 운, 송달춘, 김종락, 정연형, 김길수, 정정규 이근제, 황인영, 지순하, 우범제, 조동환, 김천복 김귀봉, 정봉귀, 조성준, 김영봉, 정순배, 강희철 유광희, 지용진, 정순건, 하준응, 김천만, 황인순	
방 장 쇠	차홍수, 김양수	
명 정	김익환	
공 포	고명석	
만 장	천성낙, 정석채, 이상배, 신무섭, 이왕복, 송병용 고대석, 이창우, 오성근, 임정상, 함기용, 김주유 한현탁	
요 여	강성구, 이삼한	
지 전	임재빈, 이진우	
운 아	유기종, 구철수	
타동네사람	황창주, 임종일, 정의호, 서정옥, 이종만, 하재오 황인원, 오병직, 유의종, 김원선, 김인권	
동 네 부 인	이소희, 홍금선, 김용복, 오재희, 조정순, 김길자 김영숙, 윤우순, 김연옥	

역 할	성 명	비 고
요령잡이	장우순, 송건호	
대메꾼	고인환, 정대규, 황선환, 김동규, 차홍철, 오세돈 지재홍, 이건창, 한준희, 유영중, 조성식, 유병환 이종식, 김형배, 유재인, 이병기, 김만복, 조용성 반상열, 김동선, 이해길, 고갑환, 송만호, 황문익 유성준, 정순득, 고경환, 지재승, 유완수, 차준석 유정준, 천진철, 이승우, 고명석, 소해규	

수고하신 분들

고 증

하 운 (河 雲, 80세)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주민

오 정 환 (吳 鼎 煥, 83세)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주민

지 도

정 인 삼 (鄭 寅 三)
한 국 민 속 촌

기 획

송 건 호 (宋 建 鎬)

